

간화선은 문자선 폐해 대안

동대 불문연 콜로키움서 김진무 교수 간화선 출현 고찰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사상적 경향과 문화적 풍토가 다른 중국으로 전래됐다. 이후 끊임없는 중국 본토의 사상과 문화와의 충돌, 융합의 과정을 통해 중국적 변용을 이뤘고 최종적으로는 본래의 인도불교와는 상당한 차별상을 보이는 중국불교의 완성에 성공했다.

선종은 '중국불교의 귀속(歸宿)'이라 불리듯 가장 중국적인 불교적 변용이다. 당대(唐代)에 본격적으로 출현해 송대(宋代)에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던 선종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간화선(禪話禪)은 송대에 대해종교(大慧宗杲)에 의해 창시돼 일세를 풍미하다가 한국불교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김진무 연구교수(사진)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4월 30일 개최한 제1차 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 '선종사(禪宗史)를 통한 간화선의 출현과 그 의의'를 통해 간화선의 제창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했다.

다음은 김 연구교수의 발표문 요약.

간화선(禪話禪)은 화두를 사용해 깨달음(진리)에 이르는 선수행법을 말한다. '간(禪)'은 '집중' '주시'를 뜻하고 '화(話)'는 '화두(話頭)'를 가리킨다. 즉 '화두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무' '간시결' 등을 화두라고 하는데 선문답 가운데 핵심이나



선사의 답어가 바로 화두이다. 화두를 통해 선의 실재를 보는 것이다.

간화선은 1130년대 송대의 선승 대해종교(大慧宗杲, 1089~1163)에 의해 성립됐다. 그 이전에는 화두를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관조하는 조사선과 묵조선이 있었다.

대혜 선사는 "크게 한번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유학이고, 승(僧)이 곧 속(俗)이요,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요, 성이 곧 범이다"라고 대혜보각선사어록 권 28"라고 해 불교와 유학의 차별이 없음을 제창하고 오히려 재가수행이 출가수행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주장했다.

대혜종교가 간화선을 주창했을 당시 송대는 유학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 관료사회였다. 이 때는 대다수의 관료 사대부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어 거사불교의 전성기였다. 사대부 거사들은 특히 혜능에서 유래한 남종선(南宗禪)에 귀의했다. 유가의 이학(理學)에서 상당부분 선학(禪學)의 심성론을 차용했고, 사대부들이 조사선에서 내재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다.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음으로 출발했지만 송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안(公案)'에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

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시작한 이런 작업은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차 사대부들의 '문자'에 의한 회롱거리로 전락되는 폐해를 낳게 한다. 또 이를 통해 '불립문자'로 출발한 선종은 점차 '불립문자'인 '문자선(文字禪)'으로 흐르는 경향을 띄었다.

문자선의 경향을 띄게 되는 상황에서 선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성적 자정(自淨)의 노력이 나타났다. 대해종교 선사의 간화선과 평지정각(宏智正覺) 선사의 묵조선이다.

문자선의 폐해로부터 묵조선이 초기의 달마선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간화선은 육조 혜능 선사의 조사선을 회복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나는 기자 bohung@buddhapia.com

굴산사지 연구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구산선문 중 사굴산문 본산으로 보조국사 지눌을 배출한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 448호)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5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강릉 굴산사지(掘山寺址)에 대한 10개년 종합학술연구를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 국사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해 강릉 신복사, 동해 삼화사, 양양 낙산사 등을 거느린 선종 중심 사찰이었다.

굴산사에는 국내 최대의 당간지주(보물 제86호, 높이 5.4m)와 부도(보물 제85호), 석불좌상(문화재자료 제38호)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소와 시는 굴산사지의 역사적 성격과 변천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사적지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적지를 전면적으로 발굴조사해 문헌사·미술사·불교사상사·민속학 등 여러 학제간 연구를 10년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묵서지편 등 보존처리 후 첫 공개

불교중앙박물관 5월 14일~6월 13일 '불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세트.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해)과 불국사주지 성타가 공동으로 부처님 유물인 불석가탑 사리장엄구 및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한다.

5월 14일~6월 13일 열리는 전시는 2009년 12월 불교계의 품으로 돌아온 석가탑 사리장엄구들이 보존처리를 마친 후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석가탑 중수문서를 포함한 사리장엄구 40건으로 8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선보여 진다.

전시 구성은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삼사리신앙 △중수문서로 크게 나뉘어 전시된다.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는 탑 안에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된 사리장엄구들은 탑과 사리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불법의 상징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는 이러

한 사리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석가탑 사리 장엄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요 성분화재로 '금동제 사리외함' '은제 사리 외함·내함' '금동제 방형사리함' 등 기타 공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는 진신사리가 아닌 부처님 말씀인 법사리에 대한 신앙이 시작된 시기로서 '법사리신앙'이 전시된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보현인다라니경> 두 종류의 경전은 탑을 세우는데 수리하는 공덕이 적혀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최초의 목판인쇄물로 그 가치를 주목받고 있으며, <보현인다라니경> 역시 이 경전을 최초로 사경한 것으로 두 유물은 과거의 법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마지막으로 중수문서는 산화된 종이머리였었던 <묵서지편>이 보존처리된 후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묵서지편>은 고려중세의 중요한 기록이며,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보현인다라니경>과 함께 고려시대의 중수기록을 알려주는 세 종류의 중수기이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행지기(1024년)> <불국사석가탑중수행지기(1038년)> <불국사탑중수보시경공증소명기(1038년)> 등 세 종류의 중수기에는 중수 과정과 사리장엄구, 공양품, 중수에 참여한 인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불국사의 위지나 사찰 운영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보여진다.

불교중앙박물관 이은정 팀장은 이번 전시개최에 대해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종단으로 반환된 것을 축하하고 법사리인 법사리인 경전을 포함한 석가탑사리장엄구의 진전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옛 경복궁 건물 100년만에 귀향

해외 반출 건물 반환 첫 사례

한·일 불교교류 30년 만의 성과로 옛 경복궁 건물인 관월당(觀月堂·사진)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관월당 반환은 해외 반출 문화재 중 건물로는 첫 사례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호탄)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격으로 일한 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일본 정토종 광명사 법주)과 일본 고도쿠인(高德院) 소재의 관월당 건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5월 3일 발표했다.

관월당 반환 소식은 같은 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을 대신해 내한한 이사장인 니오카 료코 스님(일본 천태종 총무원장)의 함의로 이뤄졌다.

협약식은 25일부터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3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간 중 진행된다. 협약 이후에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조 하에 건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관월당은 조선 후기 조선 왕실이



조동섭 기자

금용담보로 조선척식은행에 제공한 것을 조선척식은행이 야마이치(山一)증권에서 재공자 받으면서 담채로 제공한 것이다. 이후 야마이치 증권은 한일 양국 정부의 협조 하에 건물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구제적인 진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돈·점 고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5월 10일 선학원에서 제1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성호(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씨가 '담연의 수행론에서 돈·점의 율령 고찰'을, 김호국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묵조명에 나타난 묵과 조의 개념'을 발표했다.

이나는 기자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보물 승격

문화재청 6일 발표... 전형적인 신라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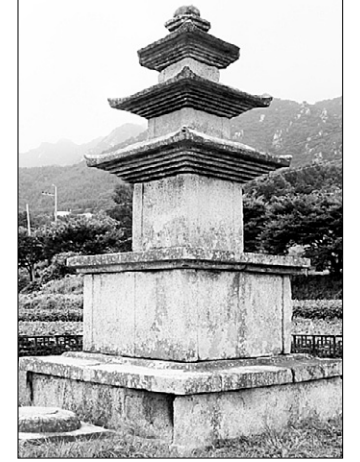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 있는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6) 때 창건한 법수사지 내에 있다. 사지는 가야산 계곡에 돌을 쌓아 만든 단에 자리 잡고 있다.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사리탑의 맨 꼭대기 지붕 위에 올려 상륜부를 받치는 부재인 노반(路盤)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문화재청은 "탑의 규모가 작고 하층 기단이 높은 등 9세기 후반 석탑의 특징을 갖추면서 신라 석탑의 모습을 보여 사찰 창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완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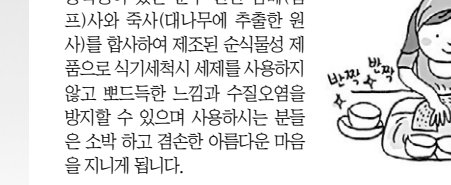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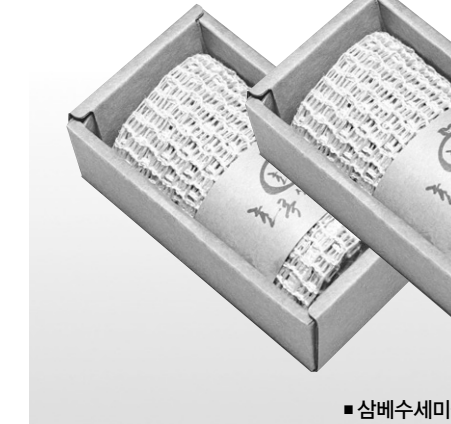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임
- 용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임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심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위생·항균·향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 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항균·향독 삼베 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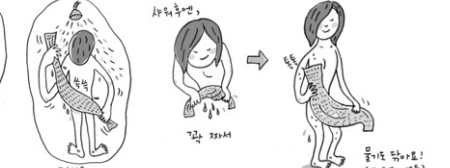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건포·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손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과 피부 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강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사지가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사지가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사지를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염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이철 외상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낫습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으므로 때가 안 낫습니다.
- 한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물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물삼 | 서울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